



포천시 문화예술단체장 ⑥ 포천예술인동우회장 이병찬

“오성과 한음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지난해 17회 정기회원전을 가진 포천예술인동우회(회장 이병찬)는 1989년도에 포천의 문화예술발원과 개인의 작품향상을 통해 지역사회의 기여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창립된 문화예술단체다.

현재 70여명의 회원이 활동중인 포천예술인동우회 이병찬(51·사진)회장은 한학을 전공한 유럽의 소장파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유럽회관 2층에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천예총 회원으로도 활동중이다.

포천예술인동우회의 주요 추진 사업은 각 분과별 발표회와 포천 문화원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반월문화제에 참가하는 것이다. 포천예술인동우회는 1988년 포천예총이 창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 공을 인정받고 있다.

시작은 동아리 형태였지만 지금은 인간관계를 상당히 중시하는 단체로 성장했다. 이석구 전 회장이 정년퇴임할 당시에는 퇴임식 자체를 못하게 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 포천예술인동우회 회원들이 이석구 전 회장의 퇴임식을 조출하게나마 마련한 것이 인간적인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는 포천예술인동우회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아울러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문화예술인장으로 장례식을 치러 드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 회장은 지난해 돌아가신 고 김진동 예총회장의 장례식을 왜 문화예술인장으로 치르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다.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어른을 모시고 선후배의 기강을 확립하며 자극히 인간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포천예술인동우회의 존재목적이라고 강조한다.

서예, 미술, 문학, 사진분과 등 4개 분과가 활동하고 있는 포천 예술인동우회가 동호인의 지변화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예산확보다. 포천시가 정기회원전에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렵지는 일이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서 그나마 정기회원전 예산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시회를 개최할 때 아마추어와 프로가 함께 활동하다 보니 어느 수준에 맞추어 전시를 해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다. 특히 서예의 경우는 그 편차가 심하다. 따라서 보통 수준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전시하고 있다. 국가의 전체적인 흐름이 공예예술에 치우치는 점도 전시분야에서는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포천예술인동우회 현안사항에 대해 이 회장은 행정적인 뒷받침이 아쉽다. 또 사무실이 없는 점이다. 포천문화원 예하 단체로

되어 있으나 마땅한 사무실이 없다. 따라서 포천문화원에서는 회의실을 빌려쓰는 정도다. 예술인 단체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연구실, 작업실, 사무실이 요구되고 있다. 반월아트홀 어느 한쪽에 공간이 마련되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한다.

포천시가 포천예술인동우회에 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 이 회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마홀' 지 제작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다.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기금을 받아 2년 동안 '마홀'지를 발간했으나 3년 연속 지원되지 않는 규정에 의거 지원을 받지 못했다. 물론 시예산도 받지 못했다.

또한 시화전 예산도 없다. 시화전 역시 경기문화재단에서 연 2년동안 지원을 받았다. 마홀지 제작비 400만원, 시화전 4000만원 등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당장 필요하지만 속수무책이다. 포천시가 이 예산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포천시민들께 바라는 사항은 교양 있고 관심 있는 시민들은 "전시장 문턱이 높지 않다"며 누구나 와서 전시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판을 벌여 놓으면 시민들이 와서 감상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전시회나 시 낭송회 그리고 각종 공연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문화 예술인들이 신바람나서 작품활동



에 주력하게 된다고 밝혔다. 포천신문이 포천예술동우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에 대해 이 회장은 지역에 대한 지원이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상을 빠짐없이 홍보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성장하는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활동계획은 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행사를 잘 준비하고 회원 확보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밖에도 이 회장은 오성과 한음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천시는 오성과 한음을 포천시 캐릭터로 지정해 오성과 한음의 정신을 계승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것은 오성과 한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성과 한음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고 전문가들로부터 오성과 한음을 구체적인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57

신숙주를 원하십니까, 성삼문을 원하십니까?

유성룡은 어려서부터 문장과 학행이 뛰어났다. 오랫동안 정승 자리에 있었으나 청빈하기가 가난한 선비와 같았다.

스무 살 즈음 그는 관악산의 한 절에 들어가 책을 읽었는데, 그가 머물고 있던 대자는 외진 곳에 있었다. 그는 대자고 간 어린 종에게 식사를 끓이게 하고는 밤낮으로 글만 읽었다.

어느 날 밤,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벽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유성룡은 못 들은 척하고 책만 읽었다. 이튿날 그 암자의 승려가 유성룡에게 말하였다.

“깊은 산중에서 도적이 무섭지 않소?”

사실 그 승려가 유성룡을 시험하고자 어젯밤 도적 복장을 하고 벽을 두드렸던 것이다. 유성룡이 홍보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활동계획은 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행사를 잘 준비하고 회원 확보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밖에도 이 회장은 오성과 한음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천시는 오성과 한음을 포천시 캐릭터로 지정해 오성과 한음의 정신을 계승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것은 오성과 한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성과 한음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고 전문가들로부터 오성과 한음을 구체적인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이이가 다시 『육신전』을 세상에 반포하고자 청하였다. 하지만 선조 역시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앞으로 집에 『육신전』을 간직하고 있는 자는 모두 반역죄로 다스리겠다!”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두려워하는데 유성룡이 문득 앞으로 나서며 아뢰었다.

“나라에서 장차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전하께서는 신들이 신속히 같은 신화가 되는 게 좋겠소니, 아니면 성삼문 같은 신하가 되는 게 좋겠소니까?”

그 말을 듣고 선조는 이내 화를 풀었다고 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도성을 버리고 서쪽으로 피난할 때였다. 왜적이 가까이 다가오자 어떤 사관(史官)이 궁궐에 있던 역사 기록들을 모두 불태우고 달아났다. 그 후 유성룡은 국정을 담당하면서 그 사관을 두 번 다시 조정에 세우지 않았다.

세월이 흐른 뒤 그 사관이 중 국으로 가는 서장관(書狀官)에 추천되었는데, 그때 선조는 그 사관의 이름을 지우며 말했다.

“이제는 사서(史書)를 불태우

고 임금을 버린 채 도망갔던 자이다. 중국에 사신으로 가는 도중 도망칠지도 모르니 다른 사람을 천거하라.”

유성룡(柳成龍) 1542년(중종37)~1607년(선조40).

본관은 풍산(鳳山)이며 자는 이견(而見), 호는 서애(西厓)이다. 1564년(명종19) 생원 및 진사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들어가 수학한 후 1566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 후 여러 벼슬을 거쳐 1580년 부제학에 올랐으며 대사간, 도승지, 대사헌, 대사성, 경상도 관찰사, 예조판서, 병조판서 등을 지냈다. 1590년 영의정으로 승진하여 이조판서를 겸직하고 이어 좌의정에 올라서도 이조판서를 겸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병조판서를 겸하고, 도체찰사로 군무(軍務)를 총괄하였다. 영의정이 되어 왕을 호종하였으나 나라를 망했다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고 면직되었다. 그러나 의주에 이르러 평안도 도체찰사가 되고, 이듬해 평안도 장수 이여송(李汝松)과 함께 평안을 수복한 후 파주까지 진격하였다. 그해 다시 영의정에 올라 전란으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복구사업에 전념하였다.

1598년 북인들의 탄핵으로 벼슬에서 물러났다가 1600년에 복관되었다. 그러나 다시 벼슬을 하지 않고 은거하였다. 학문과 문장, 글씨는 물론 덕행으로 이름을 떨쳤다. 저서로 『서애집(西厓集)』, 『징비록(懲虜錄)』 등 여러 권이 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매미(Mammy)’와 ‘단장의 미아리 고개’



윤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세계적으로 히트한 ‘매미(Mammy)’를 연상케 한다. 졸슨은 일종의 보드빌인 레뷰(Revue) 무대에서 성공한 20세기 최고의 엔터테이너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매미(Mammy) 이외에도 ‘소니 보이(Sonny Boy)’ 등 불멸의 히트곡들을 남겨 놓았다.

물론 ‘단장의 미아리 고개’는 1930년대 이후 한국에 유행하기 시작한 악곡에서 불러졌던 하나의 스타일화 된 노래로 볼 수 있는데 1950년대 대부분의 가수들이 악곡단에 속해 있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레코드 녹음이 어려웠던 시절이라 가수들에게는 악곡단에서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유일한 발표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노래 1절에서는 전쟁 중에 손이 묶인 채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이북으로 끌려가는 남편을 비통하게 묘사한다. 1절이 끝난 후 간주 부분에서는 남편이 살아 돌아오길 바라는 애절한 심정을 연극적인 대사로 표현한다. 이런 형식은 중국적으로는 서구의 레뷰나 보드빌 등의 음악극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1930년대 형성된 한국의 악곡 스타일이 서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두 노래가 서로 비슷한 형식을 지녔다고 해서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 단장의미아리고개 | 매미(Mammy) |
|---|--|
| 1절: 미아리 눈물고개, 넘어 넘어 이별고개, 화약이 없을 거러 눈 못 뜨고 해대 일 때, 당신은 철사 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걸며 걸며 끌려가신 이 고개, 한 많은 미아리고개 간주: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세요. 어린 영주는 오 늘날도 아빠를 그리다가 이제 막 잠이 들었어요. 동지선날 기나긴 밤 북쪽향길 몰아칠 때 당신은 감 옥살이에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심년이 가도 백년이 가도 부디 살이만 돌아오세요, 네? 여보, 여보----- | 1절: 밖을 배회하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혼자라면 그렇게 사랑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당신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어머니 태양은 동쪽에서 그리고 서쪽에서 빛나죠, 그렇지만 어디에서 가장 빛나는지는 저는 압니다. 어머니, 사랑스러운 어머니, 제 마음의 줄은 알려주마에 얽혀 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늦지 않게 가겠습니다. (중략) 나의 어머니. 간주: 어머니, 나의 어머니, 태양은 동쪽에서 그리고 서쪽에서 빛이 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압니다. 어느 쪽에서 태양이 가장 빛이 나는지, 어머니,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어머니를 저를 너무 많이 기다리지 않아야 할텐데 그리고 저 또한 너무 늦지 않아야 할텐데, 어머니의 미소를 보고 싶어 수백 마일을 달려가겠습니다. |

1921년에 발표된 ‘매미’는 당시 브로드웨이에서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고 최초의 유성열화(재즈 싱어(The Jazz Singer, 1927))의 메인곡으로도 쓰여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졸슨의 가장 유명한 노래라고 할 수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내용의 가사는 졸슨이 사랑했던 그렇지만 9살에 죽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부르던

사모곡이었다. 이 곡의 특징도 노래 1절이 끝나고 간주 때 마치 레치타티보(Recitativo, 말의 리듬과 강세를 모방하는 형식, 마치 말을 하듯이 하는 노래)와 비슷한 방법으로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연극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는 어머니(매미)와 남편(단장의 미아리 고개)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동서양을 불문하고 애절하고도 비통한 노래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흥미롭다.

슬자리에 있는 자의 도리와 책임을 지고자 하였던 참 선비였으며 군자였다.

다시 말해서 국가에서 원로 신하에게 내리는 세비(歲費)를 받지 않은 것은 왜놈들의 변란을 보고도 죽음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한 귀족이나 양반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부끄럽고 송구한 임금이나 백성에 대한 책임의식의 발로였다고 볼 수 있다. 굳건한 절개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는 선비도 있다.

요즈음 세태를 보라. 나라의 예산이나 재정을 축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철면피들이 판치는 세상이 아닌가? 내 고향의 명문가 문화 류씨 문중의 류병철 대가의 행적을 후세 교육 자료로 가르침을 주어야 할 것이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한탄강 수몰예정지는 석기문화 보고”

한탄강살리기시민연대 26일 기자회견에서 밝혀

한탄강댐 수몰 예정지에 많은 선사시대 유물과 천연기념물급 자연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재단과 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탄강살리기 시민연대’는 2월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조사 결과 이전 지표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문화재가 많았다”며 “정부 가 댐 건설을 강행한다면 한탄강 인근 선사시대 유적들도 함께 수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조선시대 함수면 운산리 구석기 유적, 관인면 함수터 구

석기 유적·지석묘군, 연천읍 부곡리 사지, 관인면 어모장군 밀양 박씨묘 등 20개 지역을 중요 유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연대는 2001년 건설교통부가 서울대 박물관에 의뢰한 ‘한탄강댐 문화재지표조사’에서 운산리 반달돌칼, 삼울리 고인돌, 중리리 비파형동검, 중리리 빗살무늬토기, 보곡리 마제석촉 등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한탄강댐 건설로 없어질 천연기념물급 자연문화재에는 비둘기낭·다라터기·가마소·부소천 현무암합곡과 명우리 주상절리 등이 꼽

혔다. 시민연대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제안한 제방중고(죽 높이기), 천변저류지(홍수 때 물을 담을 수 있는 지역조성) 등의 방법을 쓴다면 댐 건설 비용의 절반으로 홍수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건교부가 댐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건설관료와 건설회사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작년 12월20일 한탄강댐 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국회에서는 한탄강댐 건설예산 120억원이 통과된 바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연극 ‘땅 끝에 서면 바다가 보인다’

포천연극협회, 3월25일 오후4시 대전대학교 소극장에서

포천연극협회와 극단 한내가 주최하는 서민극 시리즈 3편 연극 ‘땅 끝에 서면 바다가 보인다’ 공연이 3월 25일 일요일 오후4시 대전대학교 예술관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이희용 포천연극협회장이 기획과 연출을 맡았으며 이규연 부회장이 무대감독으로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그동안 두 편의 서민극으로 포천시민의 마음을 적시해 했던 연출가 이희용씨는, 이 연극을 ‘감동과 해학 그리고 익살이 잘 버무려져 관객에게 웃음을 심어주고,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저마다의 애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연극’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제25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참가작품으로 무료공연이며 연극을 사랑하는 포천시민이면 누구나 감상이 가능하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91)

녹봉(祿奉)을 사절한 문녕군(文寧君)

「류병철(柳秉楅)」대감(순조 7년·1807년~고종 35년 1899년)은 소홀을 고교리 향학산 아래에서 태어났던 명문가의 후손으로 학자이며 행실이 바르고 학식이 고명(高明)하여 많은 제자를 두었다. 포천의 문화류씨 명문가 출신으로 자는 계소(季昭) 호는 향하(香下)였으며 시령부원군 영의정 류전의 10대 손이다. 류씨 문중의 대학자 용서 기일(龍西基一)의 둘째 아들이다.

학행(學行)으로 금부도사(禁府都事) 문령부 도정(敦寧府都正)을 제수 받고 고종 26년(1899년) 조대비(趙大妃)의 망구친경(望九親慶) : 여든 한 살의 나이로 나이 90세를 바라보는 경사스런 잔치를 축하함)으로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가 제수 되는 영광을 입었다. 영광은 이에 끝이지 않았다. 선조조 영의정 시령부원군 유전의 갑입(300년 甲巳)이 되어 공신의 10대 적장손(嫡長孫)으로서

유병철(柳秉楅)대감에게는 문녕군(文寧君)의 승봉을 받는 영광을 받게 되었다.(세습공신군호) 우리가 류병철 대감을 특별히 기억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1894년 고종 31년 나라가 혼란하고 나라의 재정이 궁핍하던 시절이고 왜놈들이 국정에 간섭하자 녹봉(祿奉) : 나라에서 주는 급여(지금의 봉급)을 받지 아니하고 세의(歲義) : 연봉(年奉)를 받지 아니하는 양반의 도리와 버

초대 漢詩



李曉鐘 (포천한시사 대표)

賞菊(상국)

順換日月至重陽(순환일월지중양) 疊疊黃花秀槿芳(첩첩황화수경방) 일월이 순환하여 중앙절을 맞으니 첩첩한 황화의 빼어나 모습은 곱구나. 晚節幽貞誇後圃(만절유정교후포) 美華精潔耀前場(미화정결요전장) 만절의 유정을 후포에서 자랑하고 있고 미화정결하여 앞마당에서 빛나고 있네. 詩樓上興濃瓊韻(시루상흥농경운) 庭苑中浮動淡香(정원중부동담향) 시루에서는 경운이 무르익고 정원에서는 담향이 떠돈다. 雅趣超然言外在(아취초연언외재) 純純姿態帶妍光(순순자태대연광) 아취가 초연하여 연외에 있으며 청순한 자태는 고운 빛을 띠네.